

# 알코올 중독자 회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치료공동체를 중심으로)

##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Rehabilitation Experience of Alcoholics, Focusing on Therapeutic Community

정현숙, 나동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unsook Jeong(duri116@hanmail.net), Dongseok Ra(dsra@cju.ac.kr)

### 요약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회복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에는 치료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회복자 9명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심층 면담을 통해 구성했고 Giorgi가 제안한 기술적 현상학적 분석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직면의 용기, 책임감의 부활, 일상생활속의 사회기술 훈련, 치료동맹자 가족, 노동생산성 향상, 가족으로 돌아가는 황금의 다리, 자기실존과의 조우라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치료공동체 내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치료공동체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에 가족 참여를 제안하였다.

■ 중심어 : 알코올 중독자 | 회복자 | 치료공동체 | 현상학적 연구 |

###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recovery experiences of rehabilitators who reside in the therapeutic community. Nine rehabilitators who reside in the therapy community have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 methods are made up with in-depth interview and descriptive analysis phrases of phenomenology Giorgi has propos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courage to confront, re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social skills training in daily life, therapeutic ally family, improvement in labour productivity, golden bridge of returning to their family and encounter self-existence. Based on the result of research, researchers have proposed the job-training program in therapeutic community, link the therapy community to the resource of local community and participation of rehabilitators' family in programs of the therapeutic community.

■ keyword : the Therapeutic Community | Alcoholics | Rehabilitators | Phenomenological Study |

## I. 서론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성되고 급기야는 의존으로 이어져 다양한 폐해를 일으키는 질환이

다.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5-®에는 정신장애로 분류되기도 한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은 18세 이상 74세 이하의

인구 중 12.2%이며, 남성 18.1%, 여성 6.4%로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 년 유병률은 3.5%로, 139만 명의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정서적 폐해, 직업능력의 상실,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만 끝나지 않는다. 알코올 중독은 가족 질환 또는 가족 공동 병이라고 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의존 현상을 발생시키고 학대와 폭력 및 경제적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폭력과 같은 범죄, 음주운전, 폭력 등을 유발하여 사회전체의 정신건강의 문제와 안녕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 기존의 접근은 중독을 개인의 부정적 특성으로 보고 병리적 모델에 근거한 병원 치료, 도덕 중심의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알코올 중독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게재된 일종의 증후군으로 보는 한편 중독 자체보다는 회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동은 199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심리·정서·생리·사회적 모델의 등장과 함께 치료공동체 모델이 관심을 받고 있다. 치료공동체란 지역사회 정신건강과 재활에 기반을 둔 주거형 재활프로그램으로서 1963년 뉴욕에서 DAYTOP Village(Drug Abuse on Probation Program)<sup>1</sup>가 출발한 이래 다양한 모델이 생성되었고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2]. 치료공동체 모델은 치료 전문가와 회복을 열망하는 개인들이 일종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은 물론 자신의 사회·경제적 삶을 유지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능력의 개발 및 상호 학습을 통한 삶의 가치와 태도의 재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2][3]. 이와 같은 치료공동체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비전트레이닝 센터, 늘 푸른 자활의 집, 2005년에는 카프 남성거주시설 감나무집, 여성거주시설인 향나

무집이 개설되었고 2018년 현재 전국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알코올 중독 치료공동체가 1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4]. 현재 대부분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내용은 유사하다. 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기강화, 사회재활훈련, 직업재활 및 유지기술 훈련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치료공동체에 대한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그간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2][5][6]. 그간의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 문제를 지닌 노숙인이나 일탈 청소년에 대한 치료공동체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치료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회복중인 개인들이 공동체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회복과 삶의 계획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재발 관리와 확인을 다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회복과 관련된 질적 연구들은 익명의 알코올중독자들의 자조집단인 단주모임(AA; Alcoholics Anonymous)에서 회복 경험과 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7-10] 치료공동체라는 맥락에서의 회복 연구는 부족하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어서 회복은 결과이기보다는 과정이고 단순한 목표이기 보다는 자신의 존재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독특하며 상황적이지만 또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11-14]. 따라서 개인적인 각자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근래에 알코올 중독 치료 접근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치료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회복자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 맥락에서의 회복과 회복의 의미, 본질과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기에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치료공동체에 거주하고 있는 회복자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로서 시의적 가치와 함께 연구결과는 치료공동체 거주 회복자들의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사회복지학제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치료공동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회복의 의미와 본질구조는 어떠

1 Daytop은 O' Brian신부가 1963년 창립한 치료공동체이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각 지역마다 Daytop이 세워져 있다. 치료공동체는 병원과 같이 질병 중심의 약물치료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질서와 규칙 아래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립심을 길러 재활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모델이다.

한가?

## II. 선행연구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은 다양한 접근이 있지만 내재된 자기초월과 영적 발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동시에 수용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 관리 능력의 개발과 교육, 학습을 통한 삶의 가치와 생활 방식의 재형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병리적 모델, 도덕적 모델을 넘어 전인적 접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15-17]. 초기 연구자들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중독자들의 변화 의지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초이론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에 근거하였다. Prochaska와 Diclemente[18]는 변화를 전속고단계, 숙고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유지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구분은 그 후 알코올 중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에게 일종의 전범으로 받아들여졌다[7][19][20]. 그 후 치료공동체는 구성원들이 24시간 동안 일상을 같이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는 방법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Kressel 등[17]은 치료공동체내에서의 생활 영역을 발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심리적 차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Kressel은 발달적 차원은 성숙도, 책임성, 가치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차원은 약물 및 알코올과 관련된 생활양식, 사회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사회적인가 등의 생활양식, 자신의 직업 태도, 개인의 사회적 관계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심리적 차원에서는 인지적 기술, 정서적 기술, 자기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차원은 프로그램의 규칙, 철학, 구조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 관여, 역할 모델로 제시하였다.

치료공동체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과 동시에 취업률, 그리고 범죄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Messina와 Nemes[3]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 거주자들은 서로간에 지켜야할 규칙을 준수하고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서 범죄에 착수하는 일이 적으며 또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치료공동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발이 줄어들고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어야 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에 거주 기간이 길고 전문가와 거주자들의 민주적 관계와 긍정적 상호작용이 발생할수록 약물이나 알코올 재사용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한편 국내의 경우 치료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Kressel 등[18]이 미국 DAYTOP에서 치료공동체의 효과성을 사정하고자 개발한 CAI, SAS 등의 척도를 한국판으로 변환한 뒤 치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차진경과 전영민[6]은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치료공동체에 참여한 회복자들은 생활양식 수준과 회복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김혜경과 신성민[2]은 서울·경기·충북 지역에서 DAYTOP 치료공동체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다섯 개 시설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변화의 단계, 생활양식 수준을 측정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주 문제의 인식에는 생활양식 중 사회적 차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중독은 물론 회복도 단계가 있음을 밝혀냈고 그 단계에 따른 적절한 방향과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공동체라는 맥락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연구 대부분이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회복자들이 구성하는 단주, 회복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기계적인 단계가 아닌 그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접근의 의의

개인의 경험을 연구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의식에 나타난 현상을 해명하고 그 본질을 연구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경험 그대로 기술

하는 동시에 인간을 주의 깊게 실천하는 것이며 인간 과학적 관점에서 사람됨에 대한 의미 탐구의 시작이다. 이에 개인의 과거 경험이 의미구성이라는 매개 틀을 통해 현재의 것이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23][24].

이 같은 특징을 가진 현상학적 연구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경험과 회복의 경험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구성되느냐를 중시하고 이 의미구성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경험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25-27].

##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의도적 표집 유형 중 하나인 기준표집으로 연구참여자자를 선정하였다. 기준 표집이란 연구자가 미리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는 연구참여자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알코올 중독자로서 단주한 지 3년 이상 지났을 것.

둘째, 치료공동체에서 생활한지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셋째, 치료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직업활동, 사회활동, 가족과의 회복 욕구가 있을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은 장기간의 회복경험과 함께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에서의 경험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을 구성한 후 K도 Y시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의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입소기간	직업관련 정보
1	남	57	초졸	이혼	1년2개월	단기계약직유지
2	남	51	중졸	미혼	1년5개월	검정고시 준비
3	남	57	전문대졸	이혼	2년1개월	노무직
4	남	57	중졸	이혼	3년6개월	자활사업
5	남	52	고졸	결혼	2년9개월	건설업
6	남	55	중졸	미혼	2년4개월	취업준비

7	남	54	중졸	미혼	2년9개월	취업준비
8	남	59	중졸	이혼	3년5개월	노무직
9	남	60	초졸	미혼	1년7개월	산림조합

## 3. 자료 수집

인터뷰는 연구 참여 동의를 한 알코올 회복자 9인을 선정하여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회복 과정에 있는 연구참여자자들의 전반적 소신상태를 고려하여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킨 후에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공동체 맥락에서 회복 경험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의 의미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 단서들이 출현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심층 면담을 종료하였다. 심층면담은 1인당 3회 회당 60분 이상 소요되었다. 심층면담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 4. 자료 분석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한 원자료를 Giorgi[24]가 제안한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전체적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진술문에 집중하면서 6회를 정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알코올 중독 회복 경험과 관계된 진술문 중 연구참여자자들이 특별히 강조했거나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분절하여 의미단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조 밖에 존재하는 것들은 삭제하였고 중복이 되는 부분들은 축약하여 중심의미를 구성하였다. 세 번째, 중심의미와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드러난 주제를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드러난 주제를 공속성 차원에서 수렴하여 현상의 본질인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 5.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연구의 엄격성

### 5.1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존중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연구참여자와 관계된 모든 정보는 익명이나 머리글자로 처리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자신의 기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음을 문서로 확인시켜 주었다.

### 5.2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29]. 연구자는 동료지식집단의 구성과 장기간에 걸친 라포형성을 통해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동료지식집단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동료 상담가 1인,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전공한 사회복지학 교수 1인, 알코올 중독 회복을 주제로 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1인, 지역사회정신건강 전문가 1인 등 4인으로 동료지식집단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으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와 1년 이상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연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 등을 배제하는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거부 반응과 반응성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는 연구참여자를 통한 확인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료의 포화 여부와 해석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받았다.

## IV.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구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1개의 중심의미와 20개의 드러난 주제, 7개의 본질적 주제도출 되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결과 목록

본질적 주제(7)	드러난 주제(20)	중심의미(71)
직면의 용기	타인을 통해 나를 볼	동료의 음주역사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임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체 식구의 변화가 나의 변화
	부끄러움의 공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고 스승 감추고자 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냄 자신과 같은 경험이 있기에 마음이 편함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같이 지냈기에 서로가 편안함
	자기점검 능력의 생성	이해받고 편안해졌기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 자신의 술 문제에 솔직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중독이 자기의 문제임을 자각 늘 회피하려던 생각에서 벗어나 술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공동체 생활은 자기의 음주 문제와 생활 문제를 교정하는 계기
	가족이 눈에 들어옴	음주 당시에는 애써 잊으려 했던 가족이 눈에 발현 나를 위한 단주이지만 이것이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자각 중독보다는 가족을 외면한 게 더 큰 죄라는 인식 공동체 식구들과 부대끼며 가족의 본질을 성찰
	노동의욕의 발현	공동체 식구들과 텃밭을 가꾸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성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체력이 회복되자 술보다는 일하겠다는 결심을 굳힘
책임감의 부활	이타적 동료애	불편한 공동체 식구를 감싸 안으려고 노력 우리를 도울 사람은 공동체 식구들뿐이라는 자각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배려심이 생김 이기적이었던 자신이 이타적으로 변한 것에 놀람
	사회적 부채의식	이해하고 돕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기적 성향이 사라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빛진 자라는 인식이 생성 건강을 해치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사회에 죄짓는 일 자신에게 투여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채로 여기고 갚고자 함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 바뀌고자 함
일상생활 속의 사회기술 훈련	체형적 단주전략의 학습	술 갈망보다는 술 냄새가 역겨워짐 술 마실 이유를 찾다가 마시지 않는 이유를 찾기 시작 오늘 하루 마시지 않으면 영원할 수 있다는 믿음 공동체는 술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적의 장소
	자연스러운 절제훈련	생활 속에서 술에 절은 자신의 체질을 바꾸어감 자신의 개인적인 습관보다는 전체의 환경을 고려 과거 같으면 술 마실 일도 이야기를 하며 푸니 신기할 정도로 술 생각이 달아남
	주체적 갈등관리 능력	갈등은 있지만 단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가족 술을 인생을 망친 주범으로 생각하고 죽을 각오로 충동을 이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악한 생각을 다스림 위기 상황이 되면 자신을 되돌아봄 술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음
치료동행자 가족	목표의식의 생성	공동체에 온 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뚜렷한 목표가 생김 중독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음 단주했을 때의 행복한 경험을 맛보고자 도전 혼자 하는 단주보다 함께하는 단주가 수습 배의 힘을 발휘
	한 지붕 한술밥 결속	같이 걱정하고 지지해 주는 공동체 식구들 속에서 외로움을 잊음

상호 이해와 지지	공동체는 한술밥 식구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
	공동체 동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살아 온 결과물로 보는 성숙한 자세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의지할 수 있으며 공동체 가족이 있기에 든든함.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할 수 있기에 도움이 됨.
밥상 공동체의 지력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밥을 같이 먹으며 가족의 정이 생김
	서로 음식을 챙겨주고 권하는 과정에서 정이 싹 틔
	갈등 빛고 싸우다가도 밥상머리에서는 화해함. 고독감이 사라지기에 단주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 높아짐
노동시장 진입문턱 낮추기	단순한 밥과 음식이 아니라 희망을 공유하는 방식
	공동체 동료의 소개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찾을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공동체 식구들은 가능성을 믿고 일자리 연계
	동료와 같이 일함으로 일에 대한 두려움 극복
노동생산 상황상	직업기술의 전수
	공동체 식구에게서 배우고 자신감 생성
	공동체 생활은 각자의 직업노하우를 전수하고 배우는 학습의 장
	인적자원의 공유
가족으로 돌아가는 황금의 다리	가족친밀성 회복
	가족과 행복 꿈꾸기
	가족관계 기술의 습득
	가족관계 회복
자기 실존과의 조우	자기애의 확보
	패배감을 겸손함으로 승화
	수용성의 증가
	수용성의 증가

### 1. 상황적 구조진술

Giorgi 현상학에 있어서 상황적 구조 진술이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이고 상황적 특성에 기반을 둔 체험을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공통성보다는 개별성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 1.1 직면의 용기

알코올 중독자들의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 중 하나가 현실외면 또는 회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연구참여자 3은 음주로 인해 자신들이 만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한 부끄럽기 때문에 늘 이것을 외면하고 인위적으로 잊고자하는 것으로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치료공동체에서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용기는 연구참여자들의 음주경력, 가족 상황,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1은 자신의 음주 문제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성향이 강하였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공동체에 들어온 후 몸을 추스르고 일을 하고자 했고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변화가 있었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게도 변화가 연결된다. 이러한 상호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연구참여자 2와 5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스승이며 자기를 비출 수 있는 거울이라고 구술하였다.

“여기 식구들은 다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한테 선생이 되는 것이다. 잘한 것을 통해서 선생이 되기도 하고 못한 것을 얘기하면서 반성할 수 있도록 하니까 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다”(연구참여자 5).

음주 특히 중독에 이르기까지 광적이고 과도한 음주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이 단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만 사회는 늘 부끄러움을 환기시키는 장소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부끄러움을 공동체 식구들과 공유함으로써 풀어나갔다. 연구참여자 9에 의하면 공동체는 감추고자 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곳이다. 이 드러냄은 자랑스러움

도 아니고 또한 수치도 아닌 솔직한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연구참여자 3과 6의 구술처럼 모두 다 같은 부끄러움을 지녔기에 마음이 편했고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구술하였다.

“여기서는 다 50보 100보예요, 걸으려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는 다 창피해 하고 어디 가서 입도 뻥긋하지 못할 정도의 쪽팔림도 상당히 많다.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공동체는 자기를 점검할 기회이자 조건이었다. 9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치료 시설을 경험하였다. 치료환경에서 역시 그들은 자기를 점검하였다고 생각했지만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점검이 생성되었다. 그 첫째 조건은 연구참여자 7의 경험에 의하면 이해받고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병원이라는 세팅에서는 자신의 지위가 환자라는 것으로 인해 중독을 회피하고 애써 합리화시키려 했지만 공동체에서는 환자가 아닌 가족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기에 중독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8에 의하면 공동체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음주는 물론 가족 사회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바꾸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는 환자에요. 알코올 중독 환자에요, 의사 간호사 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환자가 아니고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나를 볼 수 있어요. 환자일 때는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고 일기도 쓰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연구참여자 6).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타인을 통해 나를 봄, 부끄러움의 공유, 자기점검 능력의 생성이라는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드러난 주제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져『직면의 용기』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 1.2 책임감의 부활

연구참여자들은 음주 시 가족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으로 향하는 본능적 사랑과 책임보다는 음주가 주는 유혹이 더욱 강하였다고 공통으로 구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나이와 가족 관계를 불문하고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가족이 눈에 들어왔다고 구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3은 자신의 중독문제보다는 가족을 외면한 것을 더 큰 죄라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식은 곧 자신의 단주 의지와 가족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자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 연구참여자 4는 공동체 식구들과 때로는 갈등하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즉 부대끼며 사는 과정에서 가족의 본질을 생각했고 이를 통해서 잊고자 했던 가족이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고 자신의 경험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싸움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지요. 미운 정 고운 정 이라는 말처럼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니까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하고 가족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가족들이 더욱 생각나고”(연구참여자 4).

공동체는 노동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텃밭 가꾸기나, 효소 만들기, 난타 등의 일들을 한다. 모두 자발적 참여를 존중한다. 자율적이고 취미 차원에서의 소소한 일들은 연구참여자 2에게는 노동 의욕의 발현으로 경험되었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5의 경우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서 한동안 외면하고 두려워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다른 구성원들보다 체력 회복이 매우 빠른 편이었다. 체력을 회복한 후 그는 일하겠다는 결심을 굳혔고 단순노무직이지만 건설현장,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옛날에는 몸이 회복되면 다시 술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전에는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해도 늘 도망 다니고 일을 안 했었는데 일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생활하니까 본격적인 일은 못 하지만 밖에 일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일을 해요”(연

구참여자 5).

공동체는 연구참여자 2의 구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술로 인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자신들도 상처를 입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서로를 감싸 안고 돕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밖의 가족 못지않게 자신들을 도울 사람들은 공동체 식구들 뿐이라는 자각을 가졌다. 이러한 인식은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자신을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연구참여자 1과 4는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배려심이 생겼고 이기적이었던 자신이 이타적으로 변한 것에 놀랐다는 경험을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지지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배려심과 이타적인 성향이 싹 트었다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이 범죄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감방 다녀온 사람보다 더 나쁜 취급을 받으니 서로를 도울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다 남들도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공기가 그렇다”(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9는 가족과 불합리한 사회가 자기를 술 먹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분노로 중독자가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자신을 점검하고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자신은 사회에 빛을 졌다는 인식이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빛진 자로서 인식은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연구참여자 8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사회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자신들로 인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여기서 먹고 입는 것 볼 때는 것 다 나랏돈이잖아요. 나 때문에 국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게 다 맨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졌으니까 빛쟁이니까 창피하지 않으려면 빛을 갚아야지요”(연구참여자 7).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가족이 눈에 들어옴, 노동의욕의 발현, 이타적 동료애, 사회적 부채의식이라는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드러난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장되었다가 다시 발현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책임감의 부활』이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 1.3 노동생산성의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단주 후에 사회적 책임감이 부활하고 일을 하고자 했으나 연구참여자 6의 표현처럼 일과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직업 경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고 사회적 신용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되었다. 9명의 연구참여자 중 6명은 아르바이트 또는 부정기적 일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처음 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료와 같이 일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극복하였다(연구참여자 2, 3). 연구참여자 3은 공동체 동료의 소개로 숯불갈비 집에서 숯불을 피우는 아르바이트자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8은 공동체 식구의 소개로 일자리에 연계되었다. 연구참여자 8은 알코올 중독자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모든 사람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얻은 사례이다.

“일을 오랫동안 안 해서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무서워요. 아무리 단순한 일도 그래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의지가 되고 겁나는 게 조금 조금씩 없어지고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3).

공동체는 사회적 관계 기술뿐만 아니라 직업기술을 주고받는 장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대화는 주로 과거의 음주와 함께 직업 생활이었다. 공동체는 각자의 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학습의 장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잠시 동절기를 맞아 봉어빵 장사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과거 봉어빵 장사를 했던 동료로부터 재료구입, 봉어빵 기계와 대여점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봉어빵 장사를 하였다.

직업 기술의 전수는 연구참여자 1의 경우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그는 과거 내장 목수 일을 하던 공동체 가족에서 목수 일을 배웠다. 목수 일은 건설 노동직 중에서 비교적 임금이 높은 영역이다. 비록 7일간의 목수 경험이지만 연구참여자는 자신감이 생성되었다.

“김선생님한테 그분은 내장 목수로서 진짜 일한 사람이예요. 그분 일하러 나갈 때 쫓아 나가서 처음에는 조수 일만 하다가 조금 배웠죠. 내장 목수들은 하루에 많이 받는 사람은 20만원 이상 받아요. 자기 기계 있으면 20만원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연구참여자 1).

직업 시장은 자신의 인적 자본과 함께 인맥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남아있는 인맥을 공유함으로써 부족한 인맥을 보충해 나갔다. 공동체 식구의 옛 동료들 소개받아 건설현장에 취업하기도 하였다. 퇴소 후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연구참여자2는 요리기술자를 소개받고 창업 준비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전쟁 끝에도 남는 게 있는 것처럼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라도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진 것은 아녜요,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 차원에서 보면 부족하고 전체에서 보면 꽤 큰 거예요. 우리 식구가 15명이면 일반사람들이 한 30을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둘 갖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합치면 30이 되는 거죠.”(연구 참여자 8).

이와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노동시장 문턱 낮추기, 직업기술의 전수, 인적자원의 공유라는 드러나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드러난 주제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저하된 노동생산성을 재고시킨 경험으로 판단되어져『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 1.4 일상생활 속의 사회기술훈련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단주는 목표인 동시에 전략이다. 목표가 아무리 원대하고 방어적이라 할지라도 전략이 없으면 실패하기 쉽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밖에서는 구성하지 못했던 단주 전략을 배울 수

있었다. 공동체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2와 7의 구술에 의하면 성공 경험은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이들의 실패 경험에서 성공의 단서를 찾았고 연구참여자 2의 표현처럼 술에 대한 갈망보다는 술 냄새가 역겨워지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 의하면 공동체는 술 마실 이유를 찾다가 술 안 마시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곳이었으며(연구참여자 8), 오늘 하루 마시지 않으면 영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성되는 곳이었다(연구참여자 7). 그리고 공동체는 술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연구참여자 5, 6).

“산책도 하고 일을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봐요. 과거에는 그 냄새가 미치도록 좋았는데 지금은 그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오고 엄청난 경지에 도달했지요.”(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몸이 술에 익숙해지고 체질이 바뀌어 갔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신의 체질을 바꾸도록 노력하였다고 구술하였다(연구참여자 3, 4, 1).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질을 바꾸는 노력은 자신보다는 전체 환경이나 분위기를 고려하는 성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연구참여자 모두는 술에 대한 갈망이나 충동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술 갈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술이 생각이 나고 여기에 꽂히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맨날 그 생각만 했는데 여기서는 말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옛날에 술 먹고 사고 치고 문제 일으켰던 얘기 하다 보면 웃으면서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술 생각이 싹 달아나요.”(연구 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를 갈등과 화해의 변주곡으로 의미 짓고 있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식구들을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지만 단주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가족으로 의미 짓고 있었다(연구참

여자 1, 6). 이런 긍정적 의미구성은 충동을 이기는 힘으로 이어졌고 늘 자신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으로 이어졌다. 공동체에서 음주충동이나 갈망은 두 가지로 이어진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술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으로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유혹을 벗어나는 경험을 했지만(연구참여자 2, 4, 7) 또한 부류의 연구참여자들은 술 생각이 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악한 생각을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참여자 1, 3, 8, 9).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되면 술로 인해 야기될 부정적 문제와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는 능력이 생성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8, 9, 2, 4, 1).

“술이라는 놈이 한번 고개를 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아져야 해요 술하고 싸우려면, 이런 생각이 나기 전에 단 도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바르게 먹고 화도 내지 않고 절제하고 다스리고 기도하고 술이란 놈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만들어 주는 거예요.”(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중 기독교적 성향의 참여자들은 술을 마귀로 의미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속에서 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고자하는 목표를 세웠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단주 실패의 원인은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4의 표현처럼 술을 마시거나 끊어도 변화되는 것이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 뚜렷한 목표가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류에서 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신과 알코올 병동과 심지어 기도원 생활까지 했던 연구참여자 3은 섬에 끌려가서도 술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으나 공동체에 온 후 목표의식이 생겼고 이 목표 의식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과 성공경험을 맛보았을 때 생겼다고 구술하였다. 폐쇄 병동과 기도원 같은 시설에서는 실패 사례만 봤을 뿐 성공적 사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뚜렷한 목표 의식은 중독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은 보편적인 현상이었다(연구참여자 1, 3, 5, 7, 8, 9).

연구참여자 모두는 단주와 재발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단주했을 때 즐겁고 행복했던 긍정적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거듭되는 재발로 인해 이러한 기억은 아련해졌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그때의 행복을 맨 정신에서 다시 살려내고 그것을 맛보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생성되기도 하였다.

“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맨날 술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주했을 때 맨정신이었을 때도 있었지요. 맨정신이었을 때 불안하기도 했지만 행복하기도 했던 말이에요. 그게 짧고 단주했을 때 보다 재발이 많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깜깜해요. 공동체에서는 그게 다 떠올라요. 왜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주했을 때 좋았던 점식구들하고 야유회가서 술 대신 사이다 먹고 배드민턴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게 그리워지고 그걸 내거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해보자”(연구참여자 7).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체형적 단주 전략의 학습, 자연스러운 절제 훈련, 주체적 갈등 관리 능력, 목표의식의 생성이라는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드러난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공동체라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주는 물론 관계기술 등을 습득하고 체득한 것으로 판단되어져『일상생활 속의 사회기술훈련』이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 1.5 치료동맹자 가족

연구참여자들에게 공동체 식구들은 단주라는 전쟁에서의 전우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우라는 인식은 우정과 결속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를 한 지붕 아래서 한술밥을 먹는 식구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단주는 혼자 하는 단주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과 의미구성을 요약하면 혼자 하는 단주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단주가 수십 배 수백 배의 힘을 발휘한다(연구참여자 1, 3, 5, 7). 특히 단주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문제를 걱정하고 지지해주는 식구들 속에서 외로움을 잊었고 이는 자기의 삶의 재건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없는 연구참여자 2는 공동체 식구들이 한술밥 식구이자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었다.

“혼자는 어려워요, 아무리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런데 단지 모였다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은 같이 안모여 있나요? 집단 프로그램 같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같이 부대끼며 먹고 자며 살며 싸우기도 하고 이런 가족이니까 단단하게 묶여 있으니까 한몸이 되는 거죠”(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공동체 동료들은 때로는 식구가 되고 때로는 단주 전선의 동맹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버팀목으로 경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려는 상호 지지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관계에서 성숙함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일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동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이 살아 온 결과물로 보는 성숙한 인식이 나타났고(연구참여자 3, 4)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말할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상호버팀목은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 5, 6).

“목사님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되겠어요. 밖에 나가면 어쩔 줄 모르는데 여기서는 그래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진짜 내 몸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다 자기 분신이에요. 다 똑같은니까. 저 사람이 잘 못되면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자가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과 같아요”(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에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양섭취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밥은 소통이자 교제였고 자신감이며 정으로 표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 음식을 챙겨주고 만들고 원하는 과정에서 정이 싹텄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가족의 정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가족관계가 소원한 연구참여자 2, 4, 6은 원가족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정을 느꼈다. 특히 갈등을 겪고 분쟁을 일으켜도 과거 같으면 결렬될 상황이지만 밥상머리에서는 화해를 할 수가 있었다. 희망을 공유하기에 단주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구

술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3, 5, 8).

“옛날 같으면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에서 싸우면 술자리에서 화해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밥상머리에서 화해해요. 밥은 먹어야 하니까. 찹찹한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채하잖아. 주변에서 다독거리기도 하고”(연구참여자 4).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한 지붕 한술밥 결속, 상호이해와 지지, 밥상공동체의 저력이라는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드러난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주 전선의 치료동맹자로서 보고 서로에게 가족 감정을 느꼈다고 판단되어져『치료동맹자 가족』으로 본질적 주제를 구성하였다.

#### 1.6 가족으로 돌아가는 황금의 다리

공동체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었기에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책임감의 부활이라는 주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이 눈에 들어왔기에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 화해하고 가족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연구참여자 3의 경우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려보고 이를 현실 속에서 구현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구체적 방법은 먼저 사과하고 부인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가족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편지쓰기, 전화하기(연구참여자 2, 4, 7), 특히 가족에게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면목이 없다는 연구참여자 8은 공동체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소회와 미안한 감정 등을 가족에게 전달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졌으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전화하고 편지를 해도 반지를 앓으니까. 용서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내 마음은 꼭 전달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 마음을 전해 달라”(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족은 단주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방법이자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족의 재구성은 가족과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는 것이다. 과거 사회적 성공과 돈, 명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구술했던 연구참여자 2는 이러한 것들은 뜬구름이며 술을 더 갈망하게 하는 요인이었음을 자각하였다. 가족과의 작은 행복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가족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행복이다. 가족외식, 여행, 대화, 밥상머리의 행복 같은 것에 의미를 두었다.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좋은 차 타고 성공하고 광탈 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행복이 뭐냐 그러면 솔직한 마음으로 아주 단순해요. 식구들과 같이 아침은 못 먹더라도 저녁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 여행가고 드라마보고, 야구중계보고 그런 게 행복이죠”(연구참여자 2).

알코올 중독은 경험자들의 구술에 의하면 가족과의 관계하는 방법을 왜곡시킨다. 자신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가족의 언행도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직설적이고 과잉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나타났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관계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기술도 동반하여 성장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공동체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기술을 배우고 가족들과의 스트레스나 분쟁을 이길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연구참여자 1, 4, 8).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갈등을 극복한 경험은 가족들에게도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빈번하지는 않지만 드문 가족과의 만남에서 과거와의 다른 자신을 경험했고 이것은 가족들에 대한 이해와 유연한 소통이라고 의미를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자신이 매우 가부장적 성향의 소유자로 부인을 압박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구술하였다. 그렇지만 공동체 생활 속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술을 배워 이러한 성향이 부인에게까지 이어져 관계 회복의 발판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내가 원래 집사람을 심하게 다뤘어요. 폭행 좀 하기도 했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집사람도 사람인데 가만있겠

어요. 더구나 술 문제까지 겹쳤는데 맨날 걸도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배운 게 제일 좋은 게 이해하고 문제가 있어도 배려하는 것이죠. 나하고는 영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니 집사람한테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더라고요”(연구참여자 7).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가족 친밀성 회복, 가족과 행복 꿈꾸기, 가족관계 기술의 습득이라는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이 가족 재구성과 화해에 귀중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져『가족으로 돌아가는 황금의 다리』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 1.7 자기 실존과의 조우

술은 때로는 절망을 먹는 것이기도 했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자기의 삶을 먹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중 1, 3, 6은 음주가 자신의 삶을 낭비하는 것으로 의미지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단주는 속절없이 낭비한 세월을 보상받는 것이었다. 그 외에 연구참여자들에게 단주는 보통사람의 꿈을 꾸며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다.

“단주를 왜 하느냐 술을 왜 끊느냐 이유야 많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위한 단주예요. 자신을 위한 단주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겠지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겠어요”(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음주가 교만함에서 비롯됐다는 각성을 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지독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패배감을 맞본 후에 겸손함이 생성되었고 자신의 음주 행각을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목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술을 마시다가 비로소 미친 짓을 하였다고 자각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죽으려고 술을 마시다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자 죽기 싫어 도움을 요청하

는 경우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바닥을 친 후의 경험이지만 겸손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겸손함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종교에 의지하여 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나타났고(연구참여자1, 7, 8, 9),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겸허하게 도움을 청하는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2, 5).

“옛날에는 술 먹을 때도 그렇고 안 먹을 때도 그렇고 너무 교만했어. 아 나는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다. 무조건 내방식대로 했는데 뭐 명상도 하고 산속에 기 들어가 자연인처럼 살기도 했는데 다 부질없지, 술을 끊으려면 겸손해져야 하는데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후에 겸손함이 생겼다”(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들의 공동체 생활은 초기에는 반발과 부정적 정서도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병원 강제 입원의 회피수단으로 공동체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상호지지와 배려, 책임감의 부활 등을 느낀 후에는 긍정적으로 의미 구성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3, 6은 가족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설에 의뢰되었지만 후일 자신 스스로 선택하였다고 의미 구성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단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비난하기 보다는 이해하는 노력과 자신보다는 이웃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성되었음을 구술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1, 5, 6).

“여기 사람들이 다 자의 반 타의 반이란 말이예요. 너 병원갈래 여기 갈래하니까 병원보다는 여기가 자유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왔는데 마음이 넓어지고 하니 끌려 온 것이 아니라 자의 반 타의 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단주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변했지요. 중독자들이 원래 꼬인 게 많은데”(연구참여자 3).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자기애의 확보, 패배감을 겸손함으로 승화, 수용성의 증가라는 드러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연구참여자들이 공

동체에서 자기의 실존과 만난 경험이라고 판단되어져 『자기실존과의 조우』라는 본질적 주제로 구성하였다.

## 2. 일반적 구조진술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참여자 개인의 특성과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였다면 일반적 구조 진술에서는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통합한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본질 구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구조란 관계들의 연결을 말한다[1]. 현상학적 연구자들은 인간이 경험하는 사실들은 매우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구조가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본질적 주제 또는 주제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기술을 하는 경향이 있다[29-31].

연구자들도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여 연구참여자들이 경험에서 나타난 본질적 주제들의 정의, 주제 간의 연결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구조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치료공동체는 물리적 공간인 동시에 실존적 공간이다. 7개의 본질적 주제들을 서로 독립되고 분리된 듯 보이지만 과거의 재구성 공간, 현실 재구성 강화공간, 초월공간, 현실 재구성 강화공간, 초월공간의 세 차원 공간에서의 경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실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경계가 유연한 것이다. 그리고 6개의 과거의 재구성, 현실 재구성 강화공간, 초월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은 자기 실존과의 조우라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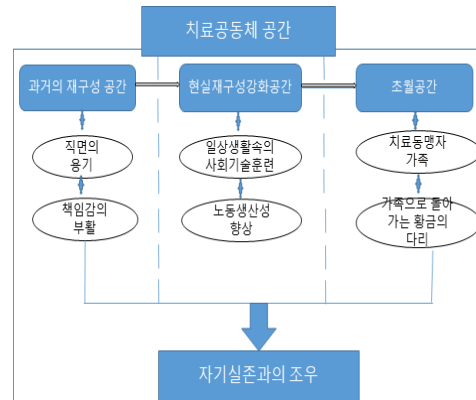


그림 1. 치료공동체에서의 회복경험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치료공동체는 자신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공간이었다. 상황적 구조 기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부인했고 또한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중독의 경험을 가진 치료공동체는 자기 낙인감과 편견이 없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반추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였기에 자신의 삶과 알코올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러한 용기들은 자연스럽게 책임감의 부활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책임감으로부터의 도피라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은 물론 가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만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현실 재구성 강화 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의 사회기술훈련과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경험을 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치료공동체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나이순에 의한 위계질서에 약간의 반발을 하기도 했으나 그것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 자기욕망 조절하기, 적절한 감정표현 등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였다. 9명의 연구참여자 중 8명은 철이 든 후 술을 먹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고 하였다. 치료공동체에서 그들은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기술을 배웠고 이러한 관계 기술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것은 노동 생산성의 저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과도한 음주문제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위축,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치료공동체를 나서는 순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안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과도한 음주는 신체·정서적 폐해를 야기하고 이는 직업능력의 저하 또는 상실로 이어진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 경험은 과거의 직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치료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에게 기술을 배우는 한편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연계하여 직업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치료공동체에서의 직업 활동은 본격적인 전업 활동은 아니지만 퇴소이후의 직업 적응을 위한 연습 기간이

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업 능력이 향상되었다.

초월공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가족이 단순한 지붕 아래서 한술밥을 먹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 동맹자로서의 가족을 경험하였다. 특히 가족관계가 악화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또다시 만든 새로운 가족이었고 가족 친밀감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 동맹자로서의 가족 경험은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놓은 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가족과 자신들 사이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다리가 있어도 그 다리는 진흙으로 만든 약한 다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치료공동체 내에서 가족관계 기술을 배양한 이들은 다시 가족과 재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고한 비전을 가졌고 자신의 문제를 가족과의 맥락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6개의 본질적 주제들은 결국 자기실존과의 조우라는 주제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인생의 실패자라는 패배감을 극복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존재론적 자각을 하였다. 이러한 실존은 자신의 존재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물론 삶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과 치료공동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 연구결과와 논의에 근거하여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치료공동체에서 재구성한 직면, 책임감, 사회적 관계기술에 대한 논의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는 중독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특성으로 보지 않고 사회경제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환경 특성 등이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 따라서 회복은 단순히 술을 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

할 전반에 대한 반성과 일상생활의 재구성에 있다[32]. 연구참여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치료와 교육의 효과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되어 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자신의 삶의 가치, 사는 방법을 바꾼 것은 낙인이 제거된 곳에서 동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추후에는 치료공동체의 접근에 있어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회복력에 중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치료공동체에서 구성한 직업능력, 노동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함께 장기간에 걸친 음주로 인해 직업 능력 저하를 대부분 경험한다. 재활은 심리·정서적 재활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강화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치료공동체는 심리·정서·인지적 차원의 재활뿐만 아니라 직업능력이 강화되고 취업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역시 치료공동체에서의 직업능력 강화, 취업의지의 고취 등의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31][33].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격려되고 고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볼 때 치료공동체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자기발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금전적·물질적 자본을 뛰어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함께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34][35].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인적 자본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재활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인적 자본의 구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치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거주 기간은 물론 퇴소 후에도 서로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지지체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자기 실존에 대한 논의이다. 치료공동체는 단순한 인지 정서적 차원의 회복이 아니라 영성과 같은 자기 실존의 재발견과 각성이 일어나는 장이다[18][36].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찌 보면 가족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신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많은 부정적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치료공동체는 부정적 문제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이의 장으로 보고되고 있다[37].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감을 부활함으로써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었다.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로 복귀한 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재발로 인해 병원이나 치료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치료공동체에서의 성공을 사회생활로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치료공동체의 거주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과 자기실존의 완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치료공동체 내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치료공동체는 직업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직업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응을 위한 인지훈련, 사회 기술 훈련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예산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직업윤리나 가치에 대한 교육은 가능할 수 있고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내에서 직업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건전한 직업윤리와 노동의욕 등은 사회 재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치료공동체와 지역사회자본의 연계이다. 알코올중독자를 비롯한 모든 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중독자들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낙인감을 희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치료공동체가 전국 16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부족하다. 지역사회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돌아가야 할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현실적인 직업 활동과 심리·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치료공동체 모델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공동체 내에 가족 재건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치료공동체는 본 연구에서는 가족으로 돌아가는 황금의 다리를 놓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 다리가 좀 더 견고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공동체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공동 프로그램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보건복지부, 서울삼성병원,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 2017.
- [2] 이상훈, 김혜정, 신성민, “치료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알코올 의존자들의 생활양식수준이 변화단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제13권, 제1호, pp.311-324, 2012.
- [3] N. Messina, E. Wish, and S. Nemes, “Predictors of treatment outcomes in men and women admitted to a therapeutic community,”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Vol.26, No.20, pp.207-227, 2000.
- [4] <http://www.kaar.or.kr/>, 2019.03.05.
- [5] 한승일, *음주문제가 있는 노숙인을 위한 치료공동체모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6] 차진경, 전영민, “알코올 중독자 회복을 위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효과측정 도구의 신뢰도검증,” 한국알코올과학회, 제10권, 제1호, pp.65-80, 2009.
- [7] 유재영, *문제음주자의 변화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8] 박애란, *알코올 의존자의 회복경험: 삶의 거듭남*,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9] 최송식, 이솔지,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30권, pp.418-448, 2008.
- [10] 홍미연, 조미경,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2권, 제1호, pp.135-162, 2018.
- [11] 정상연, 김주심, 김유진, 김영미, 천성문, “대물림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제23권, 제4호, pp.815-842, 2016.
- [12] 최미란, 조희선,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둔 여성배우자의 자아 주제성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pp.576-589, 2019.
- [13] 권학선, “알코올 중독자의 재발 추출요인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연구, 제3권, 제1호, pp.61-86, 2006.
- [14] 우재희, “남녀 알코올 중독자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98-307, 2014.
- [15] 차진경,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이 알코올 의존자의 회복과정, 변화단계 및 혈청Cortisol농도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16] G. De Leon, *The Therapeutic Community: Theory, Model, and Method*, New York, Spring Publishing Company, 2000
- [17] D. Kressel, G. De Leon, M. Palij, and G. Rubin, “Measuring client clinical progress in therapeutic community treatment: The therapeutic community Client Assessment Inventory, Client Assessment Summary, and Staff Assessment Summar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Vol.19, No.3, pp.267-272, 2000.
- [18] J. O. Prochaska and C. C. DiClemente, “Stages of change in the modification of problem behaviors,” In M. Hersen, R. M. Eisler, and P. M. Miller(Eds),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Vol.26, pp.183-218, 1992.
- [19] 신성만, 권정욱, 손명자 역, *동기강화상담변화 시키기*, 시그마프레스, 2006.
- [20] D. B. Donovan and D. B. Rosengren, “Motivation for behavior change and treatment among substance abusers,” In J. A. Tucker, D. M. Donovan, and G. A. Marlatt(Eds), Changing Addictive Behavior.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9.
- [21] N. Jainchill, J. Hawake, G. De Leon, and J. Yagelka, “Adolescents in therapeutic community: one-year post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Vol.32, No.1, pp.81-94, 2000.
- [22] A. L. Nielsen and F. R. Scarpitti, “Prediction



retention in a therapeutic community for incarcerated substance abuser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Vol.34, No.3, pp.47-85, 2002.

[23]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0.

[24] A. Giorgi,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usands Oak, CA. Sage, 2004.

[25] 박미숙, “알코올 사용장애자의 알코올 단서에 의해 유발된 갈망 특성,” *감성과학*, 제10권, 제4호, pp.603-611, 2007.

[26] 김교현, “중독 그 미궁을 헤쳐 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2권, 제4호, pp.667-693, 2007.

[27] 강선경, 최윤, “약물중독자 회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2권, 제1호, pp.191-211, 2018.

[28] E. G. Guba and Y. S. Lincoln, “Inquiry Methodologies?,” In D. M. Fetterman(Ed). 89-115 *Qualitative Approaches to Evaluation Action in Education*, New York, Praeger, 1985.

[29] 김영란, *질적연구방법론II: Method*, 아카데미프레스, 2014.

[30] F. J. A. Wertw,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Approach to Trauma and Resilience: Five Ways of Doing Qualitative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31] H. L. Goodall, *Writing Qualitative Inquiry: Self, Stories, and Academic Life*, New York, Routledge, 2008.

[32] 박애란, 차진경, “지역사회와 중독,” *중독재활총론*, 학지사, 2011.

[33] M. Lyvers, V. Jones, M. Edwards, K. Wood, and F. A. Thorberg, “Traits associated with treatment retention in a therapeutic community for substance dependence,” *Therapeutic Comm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eutic Communities*, Vol.39, No.3, pp.137-147, 2018.

[34] 박희훈, 이유정,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교 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다문화 정체성 인식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제25권, 제1호,

pp.725-743, 2019.

[35] 진영, 이경락, “사회적 자본이 이동학습자의 지식공유 행위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9호, pp.647-658, 2018.

[36] O. B. William and B. P. Fernado, “The therapeutic community,” Section VI Treatment Approaches, In H. L. Joyce, R. Pedro, B. M. Robert, and G. L. John(4th Eds), *Substance Abuse: A Comprehensive Textbook*.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97.

[37] M. Butler, M. Savic, D. W. Best, V. Manning, K. L. Mills, and D. I. Lumbar, “Wellbeing and coping strategies of alcohol and other drug therapeutic community workers: a qualitative study,” *Therapeutic Communit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eutic Communities*, Vol.39, No.3, pp.118-128, 2018.

### 저 자 소 개

정 현 숙(Hyunsook Jeong)

정회원



- 2010년 : 청주대학교 박사수료
- 현재 : 정신재활시설장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

나 동 석(Dongseok Ra)

정회원



- 1992년 ~ 현재 : 청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1985년 ~ 1992년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6년 ~ 현재 :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부회장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건강사회복지, 사례관리론